

대학생의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방 소 연¹⁾ · 김 순 이²⁾ · 양 경 미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으로 비만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날씬한 체형을 선호하게 되면서, 부적절한 체중조절 행위라는 또 다른 형태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Sobra & Geliebter, 2002).

섭식장애란 체중을 조절하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로, 일관성 없는 섭식행동을 보이며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과 신경성 대식증(bulimia nervosa) 같은 생리적, 사회문화적, 행동적 구성요소를 갖는 복잡한 장애이다(Gidwani & Rome, 1997). 즉, 자신의 외모에 대한 비정상적인 태도로 인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섭식행동을 보이며 음식섭취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조사 대상이나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990년에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0.7%가 신경성 식욕부진, 0.8%가 폭식증이고(한오수 등, 1990),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섭식장애가 있는 대상자가 2003년에는 3.4-5.9%에서(송경애, 박재순, 2003; 이경혜, 김숙경, 천기정, 한숙희, 2003) 2007년에는 12.6%로(최명숙, 천숙희, 2007)로 나타나, 섭식장애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섭식장애에 관한 선행연구(황란희, 신혜숙, 2000)에 의하면, 외모나 체중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여대생들이 식품섭취를 제한하여 영양소 섭취 상태가 불량하며, 이러한 현상으로 증장년기 이후의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극단적인 방법의 다이어트나 장기간의 다이어트로 자신의 신체적 요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폭식행동을 하게 되고 다시 원래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인 구토를 하며 결국은 섭식장애로 까지 발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섭식장애는 개인에게 신체적 손상과 심리적 어려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섭식행동이 점점 불규칙해지면서 정신적 부작용도 더욱 심해져 모든 사회적 활동과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각할 경우 생명의 위협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신질환 중 가장 사망률이 높으며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였다(Gerber, 2005).

현재까지 진행된 섭식장애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식습관, 신체상, 자아존중감, 우울 등과 섭식장애와의 관련성을 주제로 한 것으로(김지선, 1997; 송경애, 박재순, 2003; 최명숙, 천숙희, 2007; 황란희, 2009; Berg, Wertheim, Thompson, & Paxton, 2002; Button, Loan, Davis, & Sonuga-Barke, 1997), 대부분이 특정 변수와의 단순상관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섭식장애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에 주로 발생하여 심각한 신체적 손상과 함께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가족, 학교, 직장 등의 모든 생활과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Gerber, 2005), 주변 환경이나 심리 사회적인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섭식장애와 관련 있는 변수들 중에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시되고 있는데(Kiang & Harter, 2006),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

주요어 : 대학생, 섭식장애, 자기효능감, 우울

- 1) 영동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 2) 혜천대학 간호과 부교수(교신전자 E-mail: sykim@hu.ac.kr)
- 3)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투고일: 2010년 9월 27일 심사완료일 2010년 10월 29일 게재확정일: 2010년 11월 4일

이나 지지는 심리적 능력 발달과 개인의 효과적인 적응양상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섭식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Ainsworth, 1989), 섭식장애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섭식장애를 경험하는 대상자의 상당수가 우울을 동반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우울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Button et al., 1997) 섭식장애와 우울과의 관계를 재탐색하고, 행동 변화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행위를 실천하고 지속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자기효능감(Schlicht, 2001)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대학생의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섭식장애 개선을 위한 중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섭식장애 정도를 확인하고 자기효능감, 우울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섭식장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건강한 섭식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섭식장애 정도를 확인하고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섭식장애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의 섭식장애와, 자기효능감, 우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의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섭식장애 정도를 확인하고,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생을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 C도와 D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대학생을 편의표집하였다.

표본의 수는 일반적인 상관성 연구에서 문항수의 5-10배를

권장하므로(이상미, 이은옥, 2005), 본 연구의 경우 최소 505명이 요구되었고 여기에 탈락율을 약 20% 정도로 고려하여, 최소 606명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 10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927명으로부터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응답이 미비한 경우를 제외한 859명(85.9%)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 섭식장애

섭식장애 정도는 Garner(1991)가 개발한 섭식장애 진단검사(Eating Disorder Inventory-2: EDI-2)를 이임순(1997)이 변안,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마르고 싶은 욕구, 체형에 대한 불만, 폭식을 확인하는 총 23문항으로, 0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9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섭식장애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임순(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0$ 이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정도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General Self-Efficacy Scale; GSES)를 오현수(1993)가 변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7문항으로,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오현수(199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2$ 이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 우울

우울 정도는 Beck(1967)이 개발한 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변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우울 증상을 측정하고 임상적 우울을 변별하기 위한 총 21문항으로,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점수가 0-9점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은 가벼운 우울 상태, 16-23점은 중한 우울 상태, 24-63점은 심한 우울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8$ 이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도는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한 부모-청소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 중 청소년용을 김윤희(1990)가 변안한 도구

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과의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과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을 확인하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점수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점수의 평균값으로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0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윤희(199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 이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2010년 5월부터 6월까지 연구대상의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참여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위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모든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았다. 연구자가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구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자료수집에는 평균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제 변수들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섭식장애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을 LSD를 이용하였다.
- 섭식장애 정도와 제 변수들과의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학생의 섭식장애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forward method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20.0세(± 2.5)로, 20세 미만인 대상자(56.8%, 488명)가 20세 이상인 대상자(43.2%, 371명)보다 많았다. 과반수 이상의 대상자가 여성(64.7%, 556명)이고, 1학년(52.7%, 45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difference of eating disorder according to subject characteristics (N=85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t or F (P)	LSD
Age (year)	≤ 19	488 (56.8)	2.03 (0.57)	1.34 (.181)	
	≥ 20	371 (43.2)	1.97 (0.60)		
Gender	Men	303 (35.3)	1.72 (0.53)	-11.18 (<.000)	
	Women	556 (64.7)	2.16 (0.56)		
Grade	Freshman	453 (52.7)	2.01 (0.57)	0.19 (.944)	
	sophomore	272 (31.7)	2.00 (0.60)		
	Junior	70 (8.1)	2.00 (0.55)		
	Senior	48 (5.6)	1.96 (0.72)		
	Etc.	16 (1.9)	2.11 (0.56)		
Major	Medical and health ^a	457 (53.2)	2.10 (0.59)	12.63 (<.000)	a > b, c, d b > d
	Humanity and sociology ^b	211 (24.6)	1.96 (0.53)		
	Science and engineering ^c	130 (15.1)	1.88 (0.54)		
	Etc. ^d	61 (7.1)	1.70 (0.65)		
Religion	Yes	420 (48.9)	2.00 (0.59)	-0.06 (.953)	
	No	439 (51.1)	2.01 (0.58)		
Parents alive	Both	796 (92.7)	2.00 (0.58)	-0.94 (.348)	
	Only one and/or divorce	63 (7.3)	2.07 (0.60)		
Living in	Home ^a	355 (41.3)	2.04 (0.56)	3.09 (.027)	a > b, d c > d
	Lodging house, dormitory ^b	315 (36.7)	1.95 (0.58)		
	Live apart from one's family ^c	168 (19.6)	2.06 (0.64)		
	Etc. ^d	21 (2.4)	1.78 (0.49)		
Allowance (10,000won/month)	≤ 19	297 (34.6)	1.97 (0.58)	0.73 (.533)	
	20 - 29	257 (29.9)	2.00 (0.57)		
	30 - 39	190 (22.1)	2.04 (0.57)		
	≥ 40	115 (13.4)	2.05 (0.64)		

명)이며, 의학 및 보건관련 학문(53.2%, 457명)을 전공하고, 양친 부모님(92.7%, 796명)이 생존해 계셨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와 없는 대상자의 비율은 비슷하고, 많은 수의 학생이 집에서 생활하거나 기숙사 생활 또는 하숙을 하고 있었다(78.0%, 670명). 아르바이트를 통한 수입을 포함한 한 달 용돈은 20만원 이하가 34.6%(297명)로 가장 많고, 다음은 20-29만원(257명, 29.9%), 30-39만원(190명(22.1%), 40만원 이상(115명, 13.4%)의 순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섭식장애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섭식장애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 전공분야와 거주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의 섭식장애 평균은 2.16점(±0.56)이고 남성의 섭식장애 평균은 1.72점(±0.53)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11.18, p<.000$). 전공분야의 경우 의학 및 보건관련 학문을 전공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고($F=12.63, p<.000$), 거주 형태의 경우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거나 자취를 하는 집단이 기타(친척집, 고시원 등)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3.09, p=.027$).

그러나 연령, 학년, 종교, 부모님 생존과 한 달 용돈에 따른 섭식장애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

섭식장애, 자기효능감, 우울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도

대상자의 섭식장애, 자기효능감, 우울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섭식장애는 평균 2.01점(±0.58)으로 5점 척도의 중위수 2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대상자의 섭식장애 정도는 보통

정도이었다. 자기효능감은 평균 2.33점(±0.52)으로 5점 척도의 중위수 2점보다 약간 높아서,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보통 정도이었다. 우울은 0점에서 63점의 점수범위 중 평균 7.73점(±8.0)으로,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낮았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평균 2.27점(±0.46)으로 5점 척도의 중위수 2보다 약간 높아,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으로, 대상자의 우울 정도를 중등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우울 점수가 0점에서 9점으로 우울하지 않은 대상자는 67.6%(581명)으로 가장 많고, 10점에서 15점으로 가벼운 우울을 경험하는 대상자는 18.2%(156명)이었다. 그러나 우울 점수가 16점에서 23점으로 중한 우울을 경험하는 대상자는 9.0%(77명), 점수가 134점 이상으로 심한 우울을 경험하는 대상자는 5.2%(45명)이었다.

<Table 2> Degree of eating disorder, self-efficacy, depression,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N=859)

Variable	Mean(SD)	Possible range
Eating disorder	2.01 (0.58)	0 - 4
Self-efficacy	2.33 (0.52)	0 - 4
Depression	7.73 (8.0)	0 -63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2.27 (0.47)	0 - 4

섭식장애와 연구변수간의 관계

대상자의 섭식장애는 우울($r=.23, p<.000$)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고, 자기효능감($r=-.28, p<.000$)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r=-.13, p<.000$)과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대학생의 섭식장애 영향요인

대상자의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확인하기 위하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ating disorder and related variables (N=859)

Variable	r (P)			
	a	b	c	d
Eating disorder (a)	-			
Self-efficacy (b)	-.28 (<.000)	-		
Depression (c)	.23 (<.000)	-.31 (<.000)	-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d)	-.13 (<.000)	.30 (<.000)	-.22 (<.000)	-

<Table 4> Influencing variables of eating disorder (N=859)

Influencing variables	Standardized β coefficient	t (P)	R ²	F (P)
Constant				47.95 (<.000)
Self-efficacy	-.23	-6.87 (<.000)	.082	
Depression	.15	4.47 (<.000)	.021	
R= .317, R ² = .101, Adjusted R ² = .099				

Independent variables: self-esteem, depressio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여 <Table 3>에서 섭식장애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자기효능감, 우울,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우울이 섭식장애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들 중 자기효능감($\beta = -.23, p < .000$)은 8.2%, 우울($\beta = .15, p < .000$)은 2.1%의 설명력을 나타내 이들 변인들은 총 10.1%(Adjusted $R^2 = .09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체중 및 체형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최근 심각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생의 섭식장애 정도를 확인하고 자기효능감, 우울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도가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섭식장애는 0에서 4의 점수 범위 중 평균 2.01점(± 0.58)으로 보통 정도이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정내와 임성문(2007)의 연구대상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섭식장애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및 전공분야, 거주형태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섭식장애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섭식장애 정도가 높다는 Lewinsohn, Seely, Morek 및 Striegel-Moore(200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성이 체중과 체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날씬해지려는 욕구를 남성보다 더 강하게 표출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Anderson & Bulik, 2004)라고 평가된다. 지금까지 섭식장애와 전공분야 그리고 거주형태와의 관련성을 제시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나 고찰은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의학 및 보건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집단이 다른 학문을 전공하는 집단보다 섭식장애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섭식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황란희, 2009)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주형태에 따른 섭식장애의 차이는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거나 자취를 하는 집단이 친척집이나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거나 자취를 하는 집단은 식품을 섭취하거나 친구들과 야식을 할 기회가 많으므로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는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전공분야 및 거주형태에 따른 섭식장애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섭식장애는 우울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고, 자기효능감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섭식장애가 높은 수준의 우울과 관련이 있다는 Berg 등(2002)의 연구와 일치하며, 이러한 결과와 함께 임상적으로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

의 35-85%가 우울한 것으로 보고되는 현실(김지선, 1997)은 섭식장애가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섭식장애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섭식장애가 자기효능감과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행동 변화에 중요한 인자일 뿐만 아니라 변화를 지속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Schlicht, 2001),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식품 섭취를 조절하지 못 하고 섭식장애가 심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섭식장애와 부모-자녀와 의사소통은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섭식장애와 부모와의 애착,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연구들(Kiang & Harter, 2006; 김정내, 임성문, 2007)과 일치하는 것으로, 섭식장애 역시 불안정한 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섭식장애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섭식장애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들 중 연구대상자의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우울이었으며, 10.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김찬열(2010)이 섭식장애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며 섭식장애도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조절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Bandura, 1989),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흡연, 체중 조절, 피임 행위, 운동, 알코올 남용 등과 같은 다양한 건강행위의 장, 단기 성공의 예측요인으로 고려되므로, 섭식장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울이 섭식장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Lindeman와 Stark(200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섭식이 심리적인 기분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므로, 섭식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섭식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C도와 D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횡단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울이 섭식장애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섭식장애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관심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공분야 및 거주형태에 따른 섭식장애의 차이 그리고 섭식장애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영향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대학생의 섭식장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섭식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섭식장애 정도를 확인하고,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C도와 D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한 8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섭식장애 정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Garner(1991)의 섭식장애 진단검사(Eating Disorder Inventory-2: EDI-2), Sherer 등(1982)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General Self-Efficacy Scale; GSES), Beck(1967)의 Beck Depression Inventory, Barnes 및 Olson(1982)의 부모-청소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를 이용하고, 수집된 자료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섭식장애 정도는 0에서 4의 점수 범위 중 평균 2.01점(± 0.58)으로, 대상자의 섭식장애는 보통 정도이었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섭식장애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 전공분야와 거주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전공분야의 경우 의학 및 보건관련학문 전공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거주 형태의 경우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거나 자취를 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섭식장애는 우울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고, 자기효능감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우울이며, 이러한 요인들은 섭식장애를 10.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대학생의 섭식장애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과 우울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포괄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자기효능감, 전공분야 및 거주형태와 섭식장애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대학생과 다른 연령의 사람들의 섭식장애 정도 및 영향요인을 비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김윤희 (1990). *부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김정내, 임성문 (2007). 부모 및 또래애착과 대학생의 섭식장애 행동과의 관계: 자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4(5), 315-344.
- 김지선 (1997). *내 외향성과 우울수준에 따른 섭식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김찬열 (2010). *규칙적인 운동에 따른 섭식장애 여성의 자기불일치 차이 검증*.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송경애, 박재순 (2003). 서울지역 일부 대학생의 식습관, 섭식장애 발생경향, 체중조절형태 및 비만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9(4), 457-466.
- 오현수 (1993). 여성 관절염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대한간호학회지*, 23(4), 617-630.
- 이경혜, 김숙경, 천기정, 한숙희 (2003). 여자대학생들의 섭식장애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9(4), 390-399.
- 이상미, 이은옥 (2005). *간호연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이영호, 송중용 (2002).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0(1), 98-113.
- 이임순 (1997). 정상인의 섭식유형 및 다이어트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16(1), 87-100.
- 최명숙, 천숙희 (2007).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재화, 체형만족도, 분노 및 식이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3(4), 327-335.
- 한오수, 유희정, 김창윤, 이철, 민병근, 박인호 (1990). 한국인의 식이장애의 역학 및 성격특성. *정신의학*, 15(4), 270-287.
- 황란희 (2009). 여대생의 섭식장애,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 관계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4), 328-335.
- 황란희, 신혜숙 (2000). 여고생의 섭식장애와 신체상.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1), 129-139.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 Psychol*, 44(4), 709-716.
- Anderson, C. B., & Bulik, C. M. (2004). Gender differences in compensatory behaviors, weight and shape salience, and drive for thinness. *Eat Behav*, 5, 1-11.
- Bandura, A. (1989).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Am Psychol*, 44, 1175-1184.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flex model. *Child Dev*, 56, 438-447.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Berg, P., Wertheim, E. H., Thompson, J. K., & Paxton, S. J. (2002). Development of body image, eating disturbance, and general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adolescent females: A replication using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in an Australian sample. *Int J Eat Disord*, 32, 46-51.
- Button, E. J., Loan, P., Davis, J., & Sonuga-Barke, E. J. (1997). Self-esteem, eating problem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cohort of schoolgirls aged 15-16: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 study. *Int J Eat Disord*, 21, 39-47.
- Garner, D. M. (1991). *Eating disorder inventory-2: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Gerber, A. F. (2005). *Trauma, culture and eating disord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 Gidwani, G. P., & Rome, E. S. (1997). Eating disorder, *Clin Obstet Gynecol*, 40(3), 601-615.
- Kiang, L., & Harter, S. (2006). Sociocultural values of appearance and attachment processes: An integrated model of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Eat Behav*, 7(2), 134-151.
- Lewinsohn, P. M., Seely, J. R., Morek, K. C., & Striegel-Moore, R. H. (2002). Gender differences in eating disorder symptoms in young adults. *Int J Eat Disord*, 32, 426-440.
- Lindeman, M., & Stark, K. (2001). Emotional eating and eating disorder psychopathology. *Eat Disord*, 9, 251-259.
- Schlicht, W. (2001). *Self efficacy: Educational aspect,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promotion*. Oxford: Elsevier Science Ltd.
- Sherer, M., Maddux, J. E., Merca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 Rep*, 51, 663-671.
- Sobra, M., & Geliebter, A. (2002). Body image disturbance in obese outpatients before and after weight loss in relation to race, gender, binge eating and age of onset of obesity. *Int J Eat Disord*, 31, 416-423.

Influencing Factors on Eating Disorders in College Students

Bang, So Youn¹⁾ · Kim, Soon Yi²⁾ · Yang, Kyoung-Mi³⁾

1)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Youngdong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yecheon University, 3)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oongbu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eating disorders in college students. **Method:** 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design was used. Eight hundred fifty-nine college students were administered self-report questionnaires to examine eating habits, self-efficacy, depression,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rom May to June, 2010.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15.0 program for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 The level of an eating disorder in participants was moderate and it differed by gender, major, and type of living. The eating disorder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 ($r=-.28$, $p<.000$), depression ($r=.23$, $p=.001$), and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r=-.13$, $p=.008$). Self-efficacy (8.2%) and depression (2.1%) were significant predictors to explain the eating disorder.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eating disorders in college students. It suggests that nursing interventions to improve self-efficacy and decrease depression for management of eating disorder are needed.

Key words : Students, Eating disorders, Self-efficacy, Depress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Soon Yi

Department of Nursing, Hyecheon University

333, Boksu-dong, Seo-gu, Daejeon, Korea

Tel: 82-42-580-6279 C.P: 82-17-257-3962 E-mail: sykim@hu.ac.kr